

# 더 촘촘하고, 더 깐깐하게... LG전자, 가전제품 위생 '사활'

위드 코로나 맞춰 위생 강화 박차  
미생물분야 인증시험소 지정 받아  
항균·항곰팡이 성능 자체적 평가  
정수기·건조기 등 살균 기능 UP



LG전자 미생물 분야 인증시험소.

LG전자가 가전제품 위생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에서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도한다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코로나 특수를 누린 가전 업계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전망 속에서 LG전자의 가전제품 위생 강화 움직임은 위드 코로나 시대 시장 공략 방안으로 풀이된다.

### ◆위생 전문성·공신력 확보 활발

지난달 30일 LG전자에 따르면 LG전자 품질경영센터 산하 '물질분석공인랩'이 최근 세계적 시험·인증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미생물분야 인증시험소로 지정됐다. LG전자는 이번 인증



정수기 내부 고온살균 기능을 탑재한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

을 통해 제품의 항균·항곰팡이와 같은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LG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전제품에 대한 위생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초 미생물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 인력을 영입했고, 지난 6월에는 물질분석공인랩 산하 미생물랩을 신설하는 등 제품의 위생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앞서 LG전자 물질분석공인랩은 TUV 라인란드로부터 2006년 국내기업 가운데 최초로 납수은 등 유해연합에서 규제하고 있는 6대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인증시험소로 지정된데 이어 2017년에는 인체 유해 살균물질을 검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험소 자격을 받은 바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가전제품의 위생에 대한 소비자 관심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같은 LG전자의 위생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 "위생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와 전망에 맞춰 LG전자의 제품력을 높이는 방향으로써 위생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미생물 분야 시험소 인증을 계기로 ▲플라스틱 및 기타 재질의 항균성능 평가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의 항곰팡이 성능 평가 등을 자



트루스팀 기능이 탑재된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오브제컬렉션. /LG전자

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LG전자는 항균·항곰팡이 소재가 적용된 에어컨, 냉장고, 흡부티 등 제품이 평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 ◆살균 기능 강화한 가전 라인업 확대

이와 함께 LG전자는 살균 기능을 강화한 가전제품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LG전자는 30일 정수기 내부에 물이 지나는 전 구간을 고온수로 살균하는 기능을 탑재한 퓨리케어 상하좌우 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신제품 정수기의 고온살균 기능은 LG전자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TITI 시험연구원과 함께 시험한 결과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녹농균

을 99.99% 제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신제품 정수기에는 UV LED로 출수구를 자동 살균하는 UV나노 기능도 적용돼 정수기 안팎으로 살균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LG전자는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에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 기능을 탑재하며 위생 기능을 강화한 바 있다.

LG전자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전체 판매량 가운데 스팀 모델 비중은 95%를 넘기도 했다. LG전자는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인 인터텍,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과 실험한 결과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 모델의 표준코스료 고온살균 및 스팀 옵션을 적용했을 때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과 같은 식중독 원인균을 비롯해 폐렴, 이질 등 총 22종의 유해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99% 제거했다고 전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에도 식기세척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의 트루스팀을 통한 위생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창대 기자 cd1@metroseoul.co.kr



## SK 울산CLX,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투입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투입  
국내 최초 도입... 민관 협력 결실  
폐플라스틱 이슈 해결 기여 기대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사용하는 공장이 탄생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가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낸 '열분해유'를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도입한다. 이번 사례는 민관이 협력해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폐플라스틱순환경제'를 구축하고자 진행한 결과물이다.

SK이노베이션은 9월부터 폐플라스틱을 고열로 분해해 만든 열분해유를 SK이노베이션 울산CLX의 정유·석유화학 공정에 원료로 투입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원료유로 투입된 열분



SK이노베이션과 SK 울산CLX 구성원들이 최초 공정 투입을 위해 열분해유를 싣고 온 차량(탱크 트럭) 앞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해유는 다른 원유와 마찬가지로 SK에너지의 정유공정과 SK이노베이션의 석유화학 공정을 거쳐 석유화학 제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석유로 만든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석유로 뽑아내

는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국내 폐플라스틱 이슈를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최초 도입한 열분해유는 SK

지오센트릭과 SK이노베이션 환경과학 기술원이 지난 2019년부터 후처리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해 온 국내 중소 열분해 업체 제주클린에너지 생산 제품이다. SK지오센트릭은 친환경을 위한 국내 폐플라스틱 열분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업 관점에서 이들이 생산한 열분해유를 도입해 품질을 개선, 정유·석유화학 공정 원료로 투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울산 CLX 열분해유 최초 도입은 플라스틱 자원 순환 경제와 친환경 확산을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 등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 산물"이라며 "ESG 경영에 기반해 탄소사업에서 그린사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 학계와의 협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한화큐셀, 美 텍사스 태양광 발전소 준공

168MW 규모, 연간 23.8만명 사용량  
"태양광 시장 선도적 지위 굳힐 것"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 텍사스주에 국내 기준 약 23만8000명이 연간 가정용으로 쓸 수 있는 전기 생산 태양광발전소를 준공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텍사스주 북동쪽에 자리한 패인 카운티에 168MW(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최근 준공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168MW는 국

내 기준 약 23만8000명이 연간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한화큐셀은 지난 2018년 텍사스 내 최대인 235MW 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한 데 이어 미국에서 100MW 규모 이상의 발전소 준공 실적을 새로 추가하게 됐다. 한화큐셀은 이 발전소를 직접 운영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태양광 발전소 EPC(설계 조달 시공) 분야와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에서 높은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 2019년 미국 태양광 분야 유력 매체인 솔라파워월드가 선정한 '태양광 EPC 어워드'에서 상위 10위권에 진입했다. 타 시장조사기관 리포트에서도 한화큐셀은 2020년 미국 태양광 발전소 EPC 실적(누적 523MW)에서 역시 상위 10위권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우드맥킨지가 2020년에 진행한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점유율 조사 결과에서 주거용은 3년 연속 1위, 상업용은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대형 상업용 주거용의전 태양광 분야에서 높은

시장 위상을 나타냈다.

한화큐셀이 미국 시장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주요 이유는 엄격한 품질관리와 브랜드력에 있다. 한화큐셀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품질 검사 기준보다 최대 3배 혹독한 조건으로 품질 관리를 진행한다.

이규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미국 태양광 시장은 저탄소, 친환경 경제의 세계적 기조 아래 급성장하고 있다"며 "엄격한 품질관리와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미국 태양광 시장에서의 선도적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 갤 스마트폰으로 '제네시스GV60' 여닫고 시동 건다

갤럭시스마트폰으로 제네시스GV60를 열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3 등에 GV60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키(사진) 기능을 적용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디지털키는 스마트폰으로 차량 키를 대체하는 기능이다. 키를 접촉하지 않아도 가까이 다가서면 문을 여닫거나 시동을 켜고 시트와 미러 조정 등 개인 설정까지 가능하다. 지인에게 차키를 공유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3에 탑재된 단거리 무선 통신인 초광대역(UWB)로 디지털키 기능을 구현했다. '삼성 패스' 기반으로 작동하며, 업계 최고 수준 보안 칩셋(eSE)로 민감한 정보와 암호화된 키를 보호한다. 무선 신호 방해나 해킹 위험도 줄였다. 디지털 키 표준화 단체 '카 커넥티비티 컨소시엄(CCC)'에서 정의한 표준도 준수했다.

지원 모델은 갤럭시 Z 폴드3와 갤럭시 Z 폴드2를 비롯해 갤럭시 S21 +와 울트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등 5종이다. 갤럭시 S20과 노트20, Z 폴드3 등도 NFC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키를 지원한다.

/김재용 기자 juk@